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 12일까지 춘향제 마당에서 홍보부스 운영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은 제89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라는 주제로 제89회 춘향제 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축제를 찾은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인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한바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따르릉 문안 서비스를 비롯,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등을 안내하고 남원시가 추진하는 복지 전반에 대한 현장 상담도 병행한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이해를 돕고, 공동체 문화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변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살펴보는 자세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춘향제를 맞이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복지지원단이 홍보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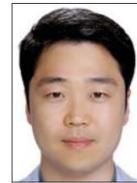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은 제89회 춘향제 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일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치과 배철현 전공의 '우수구연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소아치과 배철현 전공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배철현 전공의는 학회에서 '아데노신 3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의 분해를 통한 Enpp1의 치근흡수억제 기전'(Enpp1 suppresses osteoclastogenesis through eliminating extracellular ATP in periodontium/periodontium)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대개 유치의 치근은 후속 영구치의 맹출과정에서 흡수되지만, 후속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 되어있는 경우 유치의 치근은 흡수되지 않기도 한다. 반면 영구치는 외상을 입거나, 과도한 교정력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드물게 치근의 흡수가 발견될 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치근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이렇듯 치근의 흡수는 유치 및 영구치의 내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기보다 특정한 유발요인에 의해 자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치근의 흡수를 유발하고,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는 치근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현 및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 Enpp1 단백질이 치주인대공간에서 생성된 ATP를 분해함으로써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치근이 어떻게 주변의 뼈와 달리 파골세포의 활성화에 대해 저항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전을 제시한 것이다.

배철현 전공의는 “현재까지 치근의 흡수를 유발하고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긴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비생리적인 치근 흡수를 예방하기 위한 Enpp1의 조절인자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카네이션 전달

익산시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인화동), 황등노인종합복지관(황등면)은 8일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의 가슴에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카네이션은 복지관 직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존경을 담아 직접 만든 것이다.



카네이션을 받은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멀리 살아 어버이날이라도 가슴이 허전했는데 복지관에서 꽃을 달아주니 자식들이 달아준 거 마냥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한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헌신한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익산시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4,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취미와 정보,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국제한식조리학교, 전주국제영화제 20주년 기념파티 진행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 20주년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향교(명륜당)에서 전 세계 영화인과 함께하는 기념파티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스무돌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2일 전주 등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1일까지 열흘간의 영화 축제를 펼친다. '영화, 표현의 해방구'를 슬로건으로 CGV 전주교사, 메가박스 전주(객사), 전주시네마타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전주 등에서 53개국 275편의 작품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민계홍 국제한식조리학교장(전주대 외식산업학교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미진 교수를 비롯해 이성민, 강인혜, James Brashear 학생 등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세계 영화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한식을 알렸다.

/잠은성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송혁),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지역본부 농촌지원단 등 농협 임직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8일 무주읍 정명일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복숭아 열매수거)를 실시했다.

송혁 지부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은 일년 중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들의 관심과 일손돕기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문성마을, 손님맞이 정화활동 실시

장수군은 지난 7일 이장우 이장과 주민,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성생태마을 펜션주변, 하천주변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활동은 장수관내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초입에서 생태마을 진입로에 방치된 농기계, 폐비닐 수거, 꽃나무를 식재 등 마을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장우 이장은 “푸른 5월, 가정의 달 5월에 산촌 생태마을에 더 많은 방문객들이 장수관내산촌 생태마을을 찾아와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다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부귀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성향'

진안군 부귀면(면장 김진구) 제41회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8일 부귀면사무소 광장에서 주민, 향우회원, 기관사회단체장, 자매결연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부귀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풍성한 식전공연이 진행됐다. 자매결연단체인 전주시 덕진동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난타 공연으로 분위기를 달랐다. 이날 기념식에서 면민의 장이 수여됐는데 △공익장 이석근, △효열장 장춘희, △애려장 김진우씨에게 수여됐다.

본 행사에서는 과자 따먹기, 장애물 경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 시절 문화를 연상할 수 있는 유쾌한 경기로 즐거움을 배가했다. 또 그동안 숨겨놓은 노래실력을 뽐내는 노래자랑을 마지막 순서로 면민화합 행사를 마무리 했다. 김진구 면장은 “진안의 관문인 부귀를 더 아름답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면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9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969/92 전주신문(주) 222 4층 (서도중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영지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3896	정읍지사 538-3387
	군산지사 010-6789-0208	남원지사 602-3896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순창지사 653-0444	무주지사 010-2300-4253
		부안지사 010-2425-4192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